

소설·드라마·발레·다큐·증언록·사진집...

여순사건의 아픔을 맞닥뜨리다



창작발레 '애기섬' 장면.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여순사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던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여수, 순천 지역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지난 6월 29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맺힌 73년의 한을 풀게 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순사건은 소설, 드라마, 창작발레, 다큐, 증언록, 사진집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조명됐다. 현대사의 비극과 참상을 그린 작품들은 '아픈 손가락'이자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지난 10일 여순사건의 아픔을 모티브로 한 창작발레 '애기섬'이 광주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공연을 마친 것을 계기로 당시를 배경으로 창작된 다양한 작품과 증언록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나라발레시어터의 창작발레 '애기섬'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엇갈린 주인공들의 극한의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간적 관점에서 '애기섬'은 지난 1950년 국가 권력이 여수의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인 민간인 100여 명을 집안 수장시진 슬픈 역사를 품은 장소다. 이밖에 공연된 발레 '애기섬'은 지난 1991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면서 스크린에 상영되지 못했던 장현필 감독의 영화 '애기섬'을 모티브로 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에 수록된 사진

창작발레 '애기섬' 감동

백시중 소설 '여수의 눈물'

웹드라마 '동백' 국제적 관심

'여순 10·19 증언론' 눈길

여순사건은 장편소설로도 그려졌다. 여수 출신 백시중 작가는 '여수의 눈물' (2020)이라는 소설을 통해 "더 늦기 전에 그날의 참상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작가적 사명감에서 글을 썼다.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66년)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 문단에 나왔던 작가에게 여순사건은 말 그대로 필생의 과업이었다.

작가가 5살 때 보았던 끔찍한 현장은 이후 오래도록 뇌리에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는 "비로소 미루고 미뤄왔던 과제를 마쳤다"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 어린 시절 여천 군청 청사 뒤쪽, 오동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 살았던 작가는 "그날 새벽 공 북는 총소리를 들었고 포승줄에 묶인 채 총살당하는 제복 입은 남자들의 죽음을 보았다"고 밝혔다.

소설을 쓰기 위해 작가는 현장 취재를 꼼꼼히 했고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란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비규환 자체였다"는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작했던 웹드라마 '동백'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19 서울웹페스트 특별상' 수상을 비롯해 '2019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황금극대상'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수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서 나아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해외 웹영화인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당시의 진실과 국가 폭력의 실상을 오롯이 담은 증언집도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순천대 여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여순 10·19 증언론-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는 140여 명의 구술자의 채록 가운데 14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순천시 향동에 거주하는 김연수 씨는 여순사건 당시 부친을 잃었다.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친은 쫓기는 신세였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소작쟁의를 벌였고 18세부터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사회주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때 아버지를 잡으려 한 거지요. 당시 아버지는 면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잡히면 죽으니까 피해 다녔어요. 결국 집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잡혔던 그날, 죽어버렸어요. 서면 구랑실에서 죽어버렸어. 총살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야. 그날, 연락을 받고 집안 어른들하고...나 7살 때 시신을 수습했지요." 여순사건 70년을 맞아 KBS 순천방송국이 기획했던 다큐멘터리 '낙인'도 당시 자행됐던 무법적인 민간인 학살의 실상을 밝힌 작품이다. 프로그램은 여순사건이 단순한 군 내부의 항명이 아닌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에서 누적된 모순이 대중 저항운동으로 폭발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증명한다. 제작진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내면에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집도 발간돼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9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펴낸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이 그것.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집에는 민간인 피해, 시민들의 피난, 협력자 색출과 학살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사진은 당시 타임-라이프지 도쿄지국장이었던 칼 마이던스가 현장에서 찍은 것으로 사진집에는 모두 98장이 담겼다. 마이던스의 사진은 신문기사와 공문서가 제공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집도 발간돼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9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펴낸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이 그것.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집에는 민간인 피해, 시민들의 피난, 협력자 색출과 학살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사진은 당시 타임-라이프지 도쿄지국장이었던 칼 마이던스가 현장에서 찍은 것으로 사진집에는 모두 98장이 담겼다. 마이던스의 사진은 신문기사와 공문서가 제공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랑을 주제로 편곡한 '아랑의꿈',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인격을 노래한 '찬기파랑가', 김죽과 선생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등이다.

한편 빛고를 무등 가야금 연주단은 1992년 창단, 가야금 연주를 통한 전통음악 보급을 목표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 연주회를 열고 있는 우리 지역 예술 단체이다.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선착순 50명.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메타_가든' 아티스트 토크

카이스트 이진준 교수 초청, 오늘 미술관 북라운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 특별기획 '메타_가든' 전 현대 미술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 다양한 기술문명과 작가들의 미적 상상력이 결합된 '가상'의 예술정원을 구현하는 기획이다.

'메타_가든' 전과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가 14일 오후 3시 미술관 북라운지에서 열린다. 초대작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사진> 교수로 김석보(미술사가) 큐레이터가 진행자로 함께 한다.

이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모아 나야 MOANAIA'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수족관의 가상경험을 전달하는 작품으로 기술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북반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소외됐던 오세아니아의 문화와 환경을 간접 투사했다.



뉴미디어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활동중인 이 작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경계공간 경험 (liminoid Experiece)에 관한 작품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 DMC에 영구설치된 12m 높이의 미디어 조각작품 'THEY' (2010)로 알려진 그는 올해 창립 72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공모전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데미안 허스트 등을 배출한 '영국 블루버그 뉴컨템포러리즈 2012'에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혼자 사랑·그리운 먼 꽃·예감 작별...

이승범 시인 '붉은 먼 곳을 두고 온 뒤 아픈 꽃마다 너였다' 펴내

목표 출신 이승범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붉은 먼 곳을 두고 온 뒤 아픈 꽃마다 너였다' (문학들)를 펴냈다.

'혼자 사랑', '그리운 먼 꽃', '예감 작별' 등 일상에서 그려내는 작품은 함축적이며 간결하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감상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와 압축의 미학을 선사한다.

"어쩌면 내일 /장자는 /다 내려놓고 떠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등성등성 /이승의 길 /굽은 길마다 /제 옆으로 길을 뚫고 /그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위의 시 '11월, 은행나무'는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철학이 담긴 작품이다. 만추의 계절에 떠올리는 '은행나무'는 우리네 삶의 단면과 닮아 있다. "다 내려놓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운명론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시인의 작품은 꽃과 나무, 자연 등을 모티브로 우리 삶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적 화자를 둘러싼 하나의 사건, 하나의 경험이 확장돼 더 넓은 의미로 전



상의 한 꿈을 듣는다..."

위 시 '혼자 한 사랑'은 우리가 오래 전 잊어버렸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그것은 이성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원형에 대한 추구에 가깝다. 아울러 아픈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속살임과도 같다.

한편 이승범 시인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성과 교장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쳤다. '사랑의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시집 '사랑을 나누며'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들의 연대, 평등·포용의 시대로...

광주여성영화제 '선을 넘다' 포스터 공개...11월9~14일 개최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최근 공개했다.

포스터는 캐치프레이즈 '선을 넘다'를 시각화한 것으로 각기 다른 네 명의 여성들이 선을 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경계를 넘어 '선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평등, 포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포스터 작업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연우 작가가 맡았다.

윤 작가는 이번 포스터에 대해 "사회가 규정하는 여자다움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과거로부터 힘찬 도약을 하는, 규정할 수 없는 여성들을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12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 6일간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 등에서 펼쳐진다.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선율...16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아름다운 가야금의 선율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국악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6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제668회 목요일국악한마당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빛고를 무등가야금 연주단을 초청해 가야금 연주회 '늘 푸

른솔'을 선보인다. '늘 푸른솔'은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시사철 흔들림없이 푸듯한 소나무처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레퍼토리는 25현 가야금 독주곡으로 바다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해지리', 1969년 죽어가는 소나무를 지키자는 뜻을 담아 작곡된 '소나무', 밀양아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